

## 對 話

主 幹

### 獨身主義?

늙은(아주) 總角으로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놀림거리의 焦點이 되곤 했며, 친구들과 함께 하면 <전 같으면 同席할 權利도 없는 게……>, 후배들을 만나면 <왜 결혼 안합니까! 큰 失戀이라도 했읍니까>, 아니면 <어떤 主義에서 온 것입니까>. 婦人들 틈에 앉게 되면 <아이! 老總角 냄새야>, 또는 우연히 어떤 女性과 함께 있거나 걷는 걸 보면 <무르익나 보지요>. 하여간 집요하게 보게 왔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보게 된 후배는 이런 성화는 싹 가시드니 오세는 또 새로운 側面에서 놀림을 받는다. 한 친구네 집에 갔더니 5,6세된 少女가 재롱을 떨었다. 난 저 친구자 저렇게 어린 딸이 있었나 했더니 孫女란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와는 계급이 달라! 라고 딱잘라 말하면서 시침을 댄다. 어릴때 이웃에 살았기에 언제나 귀여워 해서 안아도 주고 업

어도 주고 올리기도 했든 한 少女가 커서 시집을 가드니 첫 아이를 낳았다. 入院室을 찾은 나에게 <요 것이>하는 말이 <선생님은 언제 결혼해요? 빨리 해서 딸을 낳아야 혹 사들이라도 될수 있지 않아요!> 이진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그때 내 얼굴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없고 <요놈이 버릇없이>라고 했든 것만 생각난다. 그런데 오세는 子息이 결혼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는데 泰半이 내 연배의 친구들이다. 이미 아들을 결혼시킨 친구들은 며느리 자랑이 제법이며, 후배나 弟子들을 만나면 <그래도 결혼과 子息이 있다는데서는 제가 先輩입니다>. 이런 따위의 말이 이제 茶飯事가 되고 있다.

한 후배를 만나서 애가 몇이오 물었다가 내 전망증에 깨나서 그물음을 수정했다. 까닭은 그가 總角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물으니 43歲란다. 아직도 내가 결혼하든 나이 보다는 젊다. 그런데 난 <결혼은 단

념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건 내가  
지금 당하는 (놀림)꺼리가 될 것이  
기 때문이 아니라 一面 眞情이 있  
는 말이었다.

나는 獨身主義를 표방한 過去는  
없었으나 웬지 제 소신껏 산다는 일  
과 결혼해서 가정이란 것을 책임진  
다는 일이 並行될 수 없다고 생각  
했기에 언제나 결혼에 대한 內的 거  
부반응을 지니고 있었다. 물이 並  
行될 수 없으리란 생각은 두가지  
측면에서였다. 하나는 예수와 뜻에  
철저히 살려면 家庭的 責任을 질수  
없으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日帝時  
에서 부터 解放後 우리나라의 꼴을  
보아서 최소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 자세로 자기를 가다듬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쫓기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해가  
올 것이고 또 가난하게 살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까닭이  
었는지, 無能한 탓이든지 간에 自身  
이 밥을 제대로 먹고 게다가 食口  
까지 거느릴만한 직업을 위한 기술  
을 배운 것이 없을 뿐더러 한번도  
정상적 직업을 가져 보지 않았고 생각  
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어  
떤 일을 해도 갖춘 자격이 없이 시작  
하고 그것이 既存體制의 면모를 갖  
추게 되면 물러 나곤 했든 것이다.  
내 직업 경력을 보면 어느 정도의  
것을 갖추고 정상적인 월급을 받은

자리는 한신에서의 봉직 생활이었  
다. 그것도 人的으로 거의 초토화  
됐든 때에 들어 갔기에 꼭 새로 시  
작되는 場과 같았다. 감사 시대까  
지 치면 10年이지만 專任으로 있는  
기간은 5年! 그 동안은 牧師도 아  
닌 사람이 어떻게 복사를 기르는  
기관의 重責을 맡을수 있느냐는 口  
舌數에 오르내린다는 말을 들었지  
만, 마침내 (자격 부족)으로 밀려났  
다. 그렇게 됐을 때 내마음은(내가  
역시 내 八字를 잘 봤지 무슨 자격  
이 있다고 家庭을 갖었어!) 말하자  
면 家主될 수 없는게 家主가 된 것  
이 역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야 제 생긴대로, 제 소신  
껏 할일하고 그 결과로 오는 어려움  
은 甘受해도 무방하지만 내 한일과  
상관없는 食口들에게 내 운명을 그  
대로 波及시킨다는 것은 잘하는 일  
이 라고는 할수 없다. 그렇다고 食  
口 때문에 소신을 굽히고 잘 생각은  
할수 없다. 그러니 結果的으로 無  
責任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주변에 자기의 所信이 어떻  
든 妻子息을 거느린 사람이 食口들  
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않고(특히 경  
제적으로) 뛰다 보니 결국 食口, 특  
히 後進으로써의 子息의 未來에 제  
한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남에게  
依存하는 삶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  
다. 그래서 결혼하는 마당에는 家

主로써의 책임(특히 경제)질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곧잘 후배들에게 타일르폰 했다. 그럴 용의나 준비가 없으면 결혼해선 안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됐다. 終末의으로 살려는 사람은 바울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獨身主義를 普遍化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은 더욱 없다.

우리나라에 比丘僧과 帶妻僧이 있다. 이것은 日帝의 產物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스도교에도 이 두 系列이 있다. 카톨릭의 神父나 修女들은 比丘僧이고 新敎의 목사, 전도사는 帶妻僧이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에는 帶妻僧制度化의 운동이 一角에서 집요하게 일고 있다. 그런데 신교에는 比丘僧운동이 있다는 소리는 별로 못들었다(독일의 신교에 比丘尼는 있지만). 나는 카톨릭과 신교가 이 점에서 한번 交代해 왔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런 생각은 月給, 子息敎育 때문에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大敎會, 시골서 서울로의 指向性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며 가정을 가졌기에 所信것 豫言者의 사명을 못하는 신교의 목사들을 대할때 일어나는 생각이다.

## 나는 대수롭지 않아!

지난 번 R. 린치가 한국에 와서 만난 일이 있다. 그는 나치스 정권에 납편을 잃고 自身도 옥중에서 死刑까지 받았다가 나치스의 敗戰으로 살아 남아서 世界的 女流作家가 된 今年 64歲의 老年이다. 그러나 나는 이 女人의 作品을 한권도 읽은 일이 없었다. 地方에 갔다가 장거리 전화로 그가 만나자고 해서 上京하는 버스 안에서 사들고 오든 그의 初期作 “살의 한가운데서”(Die Mitte des Lebens)를 펍케지 줌 읽은 것이 전부다. 그런데 그를 만나자 그렇게 親近해 진 것은 아마 말 때문이었으리라. 老期에 접어든 적은 女人인데 그의 사고는 活火山처럼 끓고 있었다. 얘기중 그의 늙음은 완정히 보이지 않았고 꿈에 도취한 少女처럼 보였다. 그는 分明히 늙지 않았다. 그의 思考는 너무도 젊고 現代的이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니—나군요!」(위의 소설서 나오는 主人公)했더니 사들고 간 한역판에 「나는 계속 다이내믹하고 쉬지 않고 巡禮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아직도 니—나」라고 써 주었다.

그런데 同席한 그의 同族의 女子가 당신의 그 발랄함의 妙法은 무어나고 플었는데 그 대답의 첫 말이

“나는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Ich halte mich nicht wichtig)라는 것이었다.

이 대수롭지 않은 말이 잊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새말은 없다. 그말이 새롭게 意味를 지니게 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사는 상황에서 받아드릴 때다.

사람은 生의 애착을 가지기에 할 일, 할말, 해야 할 行動도 못한다. (살고 봐야지)라는 것이 너무나 自明的인 전제가 되어 (나도 죽지 못해 이일을 하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이룹니다.>라는 말을 까끔 듣는데 그것은 正當한 일이 아닌줄 알면서도 <生의 애착> 때문에 옮지 않은 일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살아야 할 權利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린저는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自尊心이 없거나 無能하다는 콤플렉스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만만한 폐기에 차 있다. 그걸에서 보면 모순된 양면 같으나 바로 거기에 그가 늙어도 젊음이 생동하는 비결이 있다. (나는 自身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은 바로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내 맡길 수 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어떤 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위할 수

있다면 自身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다는 자세다. 이게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음의 각오를 하면 산다는 뜻이리라.

사실 사람의 삶이란 긴 안목에서 보면 歷史의 한절이요 순간일 따름이다. 그래서 生은 無常하다는 말을 念佛처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같은 生의 한 트락이 그렇게 소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生의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生은 공허해만 진다. 生의 애착은 自身을 自身안에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生을 너, 또는 일로 채울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고 또 무엇이나 찰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自己, 自己 위치, 自己 공로 따위를 잊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끝장인 사람이며 오래 살면 살만큼 損害만 끼칠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 아닌 存在라는 의식만이면 사람은 점점 무능해지고 마침내 自暴自棄에 빠지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은 내 말은 일, 내 해야 할 일이 重要하다는 것에 눈을 뜰때 비로소 늙어도 젊은 生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린저는 나이를 모르는 女人 같다. 그 꿈은 끝이 없다. 그는 제 祖國인 도이취란드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까닭은 그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큰 변동이 없을 만큼 安全하고 견고해 졌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단다. 까닭은 그는 이제 오고 있으며, 와야 할 歷史의 전환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反해서 오히려 현재 不安全하고 混亂스러운 국가일수록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까닭은 그것이 바로 새로운 未來에로의 모색의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不安全的 사회라고 본다. 그러나 그의 巡迴 演壇장에 도인 數千의 젊은이들의 눈동자에서 새로운 未來를 갈구하는 정열이 불꽃처럼 튀기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한국은 希望의 나라라고 했다. 그리고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한국에서처럼 (내 집, 내 고향) 같은 애착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정말 잘 본 걸가?—

우리에게도 滅私奉公이란 말이 있다. 위선 린저의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느냐가 문제며 (公)이 무엇인지가 문제다. 전에는 公이 곧 王이다. 까닭은 그가 바로 나라(公)를 대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王이 滅私奉公을 강요하면 결국 (나)를 위해 모두 자기를 버리라는 뜻이 된다. 또는 공을 그쳐 (나라)라고 할

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라)라고만 하면 그게 자명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나라와 政府를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政府의 시책을 위해 國民은 滅私하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民主社會에서는 나라의 主人은 바로 民衆이다. 그렇다면 滅私奉公이란 저 民衆을 위해 나를 죽이라는 말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民衆을 위해 私를 내맡기는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는 나를 대수로운 것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어느 老教授가 (더럽게 늙지 말아야지)를 입버릇처럼 한다. 더럽게 늙는 건 결국 生의 애착, 自身의 삶을 그토록 重視하기 때문이다. 晩年을 편안히 살자는 것이다. 그런자는 過去야 어떻든 이미 廢物이다. 그런 것들과 린저는 대조적이다.

### 어린이 같지 않으면 !

예수는 너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세 어린이 얘기는 이 말씀을 다시 새기게 했다. 세 어린이들이 실종이 됐었다. 그런데 며칠만에 우연이 屋上 물이 마른 땀 속속에서 저들을 발견했었다. 슬박꼭질을 하다가 자동적으로 닫치면 안에서 열 수

없는 防火用 물탱크속에 스스로를  
감금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몇날 동  
안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다(신문에 보도 됐다고  
하나 직접 읽지는 못했고 얻어 들  
었기에 正確性은 모른다). 저들은  
처음에는 나울려고 발버둥을 쳤으  
리라. 그러나 안에 있는 자기들로  
써는 不可能한 것을 알고는 (기다  
림)의 자세로 돌입했다. 저들은 불  
침번을 교대로 했다. 까닭은 밖에  
서 구조의 손이 올때 깨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기도  
를 하며 즐지 않기 위해 교대로 옛  
말을 하면서 기다렸단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산다)의 原모델이다.  
저들은 갇힌에서 '나를 낳을 기다렸  
다. 그들은 기다림에서 체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 사람의 운명이  
한 운명임은 알았다. 그러므로 더부  
러 살기 위한 계획을 작성했다. 그  
때서 서로 옛말을 하면서 절망과  
체념에 침몰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저들의 한계를 알았다. 그  
때서 기도를 드렸다. 기다림은 깨  
여 있음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깨  
여 있어 밖에서 올 구원의 손길의  
노크소리를 듣기 위해 교대로 불침  
번을 섰다. 이렇게 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현실을 (더불어)  
힘줄으로 克服해 나갔다.

이것이 當然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갇힌 것을 알았을 때 책임 주  
궁으로 그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네가 여기 들어오자고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야?로 시작되면 결국 핑  
계가 생기고 나가서는 亂鬪劇이 벌  
어 질 수도 있다. 절망이 심하면  
發惡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으면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의 계획도  
펼수 없었을 것이고 절망에서 몸부  
림 치며 울고 불다 지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른들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다. 分明히 한 운명  
의 틀속에 감춰움을 알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惡만 남아 서로 물  
고 뜯고 마침내 죽여 버리는 경위  
가 많다. 궁하면 집안에 싸움이 일  
게 마련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게 어른들의 세계 아닌가? 미  
국 서부극은 이러한 人間의 斷面圖  
다. 惡漢이 은행을 털어 도망하다  
궁지에 몰린다. 저들은 서로를 의  
심하기 시작한다. 저들은 그 흠친  
것의 문을 활이기 위해 하나 하나  
죽인다. 그래서 처음부터 不信의  
恐怖속에 있다. 포위가 되어 더 도  
망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결국 서  
로 죽이므로 마침내 다 죽고 만다.  
이것은 (더불어 살자)가 아닌 (지  
만 잘 살자)는 利己主義의 측도다.

한 나라의 사는 길도 그렇다. 특  
히 危機를 당했을 때 정부는 국민에  
게, 국민은 정부에 또 그 안에서도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데서 시작해서 隊列의 分裂을 일으킨다. 또는 위기니까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 국민을 기동대화 하고 上部의 명령 한마디에 전체 국민이 복종만 하는 체제를 理想化 한다. 政府以外의 어떤 진정한 建議도 一絲不亂의 체제를 시끄럽게 하는 利敵的인 잡음으로만 듣는다. 나라를 지키고, 싸울 자는 결국 국민인데 저들은 나라의 운명을 論하는데 干與할 수 없게 되니 결국 不和音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국민들이 비록 복종을 해도 노예적인 굴종이지 국민으로 제 운명을 전 싸움으로 알고 제 맡은 일에 忠誠하지 않게 된다. 어려울 때일 수록 저 어린이들처럼 같은 운명안에 있는 공동체의 一員으로서 서로 意見을 말하고

自發的으로 自己가 할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부씩을 책임지고 떠 맡는다. 여기 다스림도 명령도 필요 없다. 까닭은 내가 죽고 사는 것과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의 운명이 곧 내 운명임을 아는 국민이기 때문에 간첩이나 범죄자를 잡아내는데 경찰을 뽑칠 정도로 기민하다. 이런 국민을 가진 마당에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정부의 귀에 거슬리면 곧 죄인으로 몬다든지 아니면 영 입을 봉하게 한다면 국가의 일이 바로 내 일이라는 忠情은 마침내 不干涉主義로 흘러 제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게 되면 어쩔려는 것인가!

□ 神學思想文庫 □

1. 人類的 未來

G. 피 히 트 158면/값 400  
孫奎泰譯

2. 平和의 유토피아

W. 아이크만 158면/값 400  
朴宗和譯

3. 갈등 속의 삶

H. 일레메트 150면/값 400  
李陽九譯

發行處: 韓國神學研究所

대체 서울 511642 전화 76-9602